

01 News

Monthly Korean Chicken MKC

기관·단체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닭고기,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같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시대상은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이 대상이다.

업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주메뉴(음식)가 표시대상이며, 집단급식소는 주메뉴(음식)의 개념이 아닌 '1식 3찬', '1식 5찬' 등으로 일반음식점 등과 메뉴 구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닭고기,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중식, 양식, 한정식 등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로 판매·제공되는 경우도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에 기재된 음식에 닭고기, 돼지고기가 들어간 경우 모두 표시를 해야 한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하거나 가공한 원상태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표시대상이다. 절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사용하여 담근 김치는 표시대상이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가 시행 초기의 많은 우려와는 달리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조기정착을 위해 2008년 12월 22일부터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되, 어려운 경제여건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고려하여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00㎡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개월, 33㎡이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6개월간 미표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태국, 홍콩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데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중국 동부 자쑤성과 인도 서벵골주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도 시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따라 동남아 및 중국·인도지역으로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경 검역 강화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인 태국·홍콩에 집중했던 여행 휴대품 검색강화 등 국경검역을 중국·인도 및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하여 이들 국가 여행자들이 닭고기 등 불법 휴대품을 반입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고, 각 시·도 등 가축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닭·오리 사육농가들에게 농장의 출입차량과 인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당부했다.



가·관·단·체·소·식

올해 예산 14조 5천억원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5,161 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정 제출한 14조 8,961억원(본예산 대비 3,802억원 증가)을 국회가 심사하여 조정한 것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피해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비 중 예산안 편성 당시는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금까지 비준 동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집행에 무리가 있는 사업의 일부(3,222억원→1,895억원)가 감액 조정되었다.

그밖에 수협 경영정상화(433억원→733), 연안어장 환경정화(193억원→384)와 송아지생산안정지원 등 축산분야(1,990억원→2,514)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총 3,327억원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기준 상향 조정·축사 건축 규제 완화 법령 개정

그동안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인 중소기업 분류상향조정이라든가 축사 비 가림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예외 적용 확대 등 축산현장의 목소리가 법령 개선에 반영돼 비용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축산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 연면적 4백㎡이하 축사 건축신고 시 자가 작성 설계도서를 인정키로 하는 동시에 연면적 5천㎡이상

축사 건축 시 공사 전 기간 동안 비 상주감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2천㎡이상 축사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합 규정을 예외로 인정키로 하는 한편 축사 연면적 산정 시 비 가림 시설 2m까지 예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같이 축산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 상향으로 축산기업의 규모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4백㎡ 축사 신고 시 5백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축사 설계 비용부담도 덜고, 도로접합 규정 예외적용으로 농지내 축사진입이 용이하게 됐다.

아울러 5천㎡ 축사 건축시 1천8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축사 감리 비용부담도 줄어드는다면 연면적 산정시 예외적용 확대로 축사 비 가림 시설의 적정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해 11월 27일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대책 일환으로 현장방역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 조류질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 질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역원 조규담 질병관리부장을 비롯한 학계·임상수의사(8명) 및 검역원 전문가(9명)가 참석해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대책의 효율적 추진방법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정보를 공유했다.

기관·단체·소식



또한 2008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과 같이 철새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역학조사결과 나타났고, 국제적으로도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철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과 능동적 예찰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농가의 방역의식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고 농가대상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검역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시방역 예찰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한 대학·민간기관에 일부 시 예찰관련 검사 이관, 종계사양관리일지의 전산화, 살처분 보상시점, 취약농가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2009년도 정부 예찰계획 수립시 적극 건의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학계 등 축종별 현장방역 전문가와의 만남의 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류질병과, 변화관리 양계현장 체험 행사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1일~12일 이틀간 '변화관리 양계산업 현장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류질병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현장·실용·성과 중심의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체험 활동으로 살아있는 변화관리실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행사는 축산(양계)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질병예방기술을 직접 발굴하고자 양계사육농가 현장체험, 일선수의사와의 상호협력방안 간담회, 직원 변화관리 워크샵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구원들은 경기도 용인소재 한 육계농장에서 양계농가 체험행사를 가졌으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위생적 사양관리와 차단방역 그리고 양계농가와 직접 연결된 현장중심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또한 충북 음성 소재 반석가금진료연구소에서 개최된 변화관리 워크샵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연구원들이 각자 수집한 선진 외국의 가금질병 예방기술 개발 동향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현장연구와 외국 최신 연구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권준현 조류질병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연구원들이 현장을 바로 알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라고 밝혔다.



가·관·단·체·소·식

질병관리본부와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등 방역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관계관과의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검역원 질병관리과 이오수 과장 및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신상숙 팀장 등 양 기관의 시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시 재발방지와 발생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시 신속한 협조체계 뿐만 아니라 발생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축산·보건 공무원에 대한 합동 교육 실시, 철새도래지 합동방문 및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도 신속히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국가재난형 질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인체감염예방과 축산업 보호에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2008. 5. 9)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정보 표시방법을 정하고, 영양성분 표시 등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축산식품 개발을

독려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표시기준 신설,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의 개정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조.

미국 농업연구청(ARS)과 연구협정(MOU) 체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이하 ARS)과 동물위생, 축산물안전, 동물복지 등 수의과학 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수의과학검역원 대표로 참석한 손찬준 축산물검사부장과 김병한 연구관은 지난해 12월 12일 미 농무부 소속의 ARS를 방문해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 등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유전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질병진단기술과 동물면역체계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구제역과 같이 축산

기관·단체·소식



관련 산업기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파급효과가 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연구인력·정보 교류 및 광우병, AI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악성 질병분야에서 협력체계를 확립해 나갈 전망이다.

기준원은 요즘 같이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께서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HACCP의 중요성을 알리고 HACCP활성화에 앞장서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HACCP전문가 현장간담회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6차례에 걸친 HACCP 현장 홍보교육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2일 HACCP전문 관련 교수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각 업종별로 HACCP 도입 과정 및 도입 후 효과 등을 직접 견학·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황우캐더링(식육판매업), (주)미트런(식육포장처리업), (주)견우푸드(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 (주)성현(알가공업)을 견학했으며, HACCP 추진현황과 함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도축장 HACCP 평가 결과, 38곳 상위 등급

지난해 도축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소·돼지부문에 25곳이, 닭·오리부문에 13곳이 상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해 9개 소비자단체 실무자와 수의과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담당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소·돼지 84곳과 닭·오리 45곳에 대한 도축장 HACCP운용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돼지부문에서는 (주)영남엘피씨, 닭·오리부문에서는 (주)마니커(동두천)가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모두 38곳이 상위등급을 받았다.

닭·오리부문 상위등급 도축장은 (주)농협목우촌, (주)동우, (주)디엠푸드, (주)마니커(동두천), (주)매산, (주)아성, (주)올품, 정우식품(주), (주)체리부로, (주)플러스푸드, (주)하림, 한강씨엠(주), (주)해마로식품 등이다.

하지만 HACCP관리에서 위해분석과 위해요소별 조치, 기록이 미흡해 10점 만점에서 6점 이하를 받은 소·돼지 도축장이 전체의 42%(35곳), 닭·오리 도축장이 31%(14곳)에 달해 교육과 감독 강화로 HACCP 관리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관·단·체·소·식

농촌진흥청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대책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겨울철 축사에서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까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피해는 축산 농가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농장주나, 관리인 모두 화재 예방에 만전을 하도록 발생원인과 예방 방법 등을 소개하여 겨울철에 축사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화재발생은 전기, 전기배선, 전열기구, 내부 열악한 환경,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화재 예방을 위해 농장에서 아래 점검사항 및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사항〉

- 축사에서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 점검과 개 보수는 전문 업체에 의뢰
- 사용하는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과 관리 철저
- 옥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문어발식)을 연결하지 말 것
- 노후화된 개폐기, 차단기는 즉시 교체
- 누전차단기는 반드시 주 1회 점검
-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 전기기계·기구의 먼지 제거 등 청결 유지
- 배전반, 분전반,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접지 공사 실시
-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 된 콘센트, 기타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
- 보온등에 철제 원형망을 설치

- 축사내 전선 등 배선은 방수용 전선 사용과 피복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 노후 전선은 즉시 교체
- 쥐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 공사를 실시
- 사용조건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 내후성 있는 전선으로 교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0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해 12월 9일 200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등 심의 안건 4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울러 최 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주YG축전염병 근절사업은 물론 ▲초동방역팀 운영제도 구축 ▲가축사육농가 위치정보 DB 구축 ▲도축검사결과 농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국가방역사업 수행의 초석을 다진 한해였다”고 강조했다.

기관·단체·소식



방역본부는 2009년에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등 3대 전략사업과 행정사무 간소화, 정책고객서비스 등 3개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혈청검사 등 8개의 가축방역사업과 농가순회교육 등 4개의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경영선진화 결의대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해 12월 6~7일 충남 천안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선진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정부의 경영선진화 및 효율화 계획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모했으며, 예산절감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경영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농협 가금수급안정위원회

2009년도 사업계획 확정, 내년 예산 13억원

농협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2008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총 13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종계DB 구축사업에 1억8천만원, 종오리 DB사업에 1억1천만원, 계란공판센터 설치 검토연구에 5천만원, 가금발전전략 심포지엄에 8천만원, 구구데이 행사 등 가금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8억5천4백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특히 수급위는 구구데이·오리데이에 각각 2억원을 투입하고 또 TV 간접광고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금산물의 영양적 우수성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가금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 상황 발생시 소비홍보 사업 등을 적기에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사)대한양계협회

2008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해 12월 23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 및 제규정(안)을 검토했다.

정관은 현행 종계·부화, 채란, 육계, 계열화사업 회원 외에 토종닭 분과위원회 신설을 재확인했으며,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거쳐 최종 시행기로 했다.



가·관·단·체·소·식



한편, 제규정(안)은 팀제에서 부제(정책기획부, 경영지원부, 홍보부, 검정연구소)로 구분해 담당업무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협회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지회·지부 규정(안)은 현행 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경남·충북·제주 등 총 6개 도지회로 구분됐지만, 관할지역내 일정 회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도단위(광역시 포함)로 도지회를 설립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내 양계회원이 현행 20명에서 10명 이상일 경우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회비를 인하여 회원 배가운동을 벌여 나기로 했다.

한편 양계업 발전을 위해 노계알선사업과 양계의 무자조금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가금육분과위원회 출범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김용만)는 지난해 11



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가금육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정명라인 구기형 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주)태풍F&B 김태환 대표, (주)마세다린 정태환 대표 등 관련업계 대표 15명을 위원으로 하는 가금육분과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가금육분과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4월 시로 인해 극심한 매출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에서 닭·오리 외식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협회 내에 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자구 노력을 하게 된 것이 시발점이었다.

당시 시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연을 맺게 된 업계 대표들은 시사태 진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유지해오면서 향후 시 등 위기 상황에서 업계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하에 '가금육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가금육분과위원회는 시의 능동적 대처뿐만 아니라 업계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했다. 